



중소기업의 고민, 함께 해결해요!

‘2016 SME Solution Talk’ 개최

지난 6월 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천안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6 SME Solution Talk’를 개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방안을 고심한 것이다. 기업의 실질적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과 상생, 소통의 장을 마련한 자리. 이날 생기원과 천안시, 유관기관 및 70여 개의 참여 기업들은 허심탄화한 대화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할 수 있었다.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유관기관, 기업 등이 함께 모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지역산업기술정책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함께 고민했다.

올해 생기원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천안지역 SME Solution Talk’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SME Solution Talk’는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생기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돼 왔다.

‘SME Solution Talk’는 기업 성장을 돕는 데 현장의 애로기술을 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영수 원장은 “생기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업의 CEO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바탕을 만들기 위해 각 기업이 생기원을 부속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을 개방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늘 행사의 타이틀이 ‘미래신기술! SME는 강하게, 국민이 행복하게!’ 라는 화두를 내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 성장 방안의 큰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 밑바탕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의 현재, 그것을 아는 가치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1부 행사인 ‘SME 경영진 Solution Talk’에는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 이영수 생기원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충청사무소장,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